

일본어역 성서에서 본 일본어의 특징(2)*

- 성서개역에 따른 일본어의 변천을 중심으로 -

안 증 환**

(e-mail : ajw7340@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일본어 성서개역에서 변하지 않는 것
 3. 일본어 성서개역에서 변하는 것
 - 3.1. 어휘의 변화
 - 3.2. 표현의 변화
 4. 결론
-

1. 서론

성서는 한국어 성서나 일본어 성서, 영어 성서 모두 히브리어(구약성서)나 그리스어(신약성서)를 원전으로 하는 번역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성서 속의 일본어는 번역어라는 하나의 위상어로 분류할 수 있다. 맨 처음 성서의 일본어 완역은 1880년의 일로 소위 明治訳 신약성서이다¹⁾. 그 후 일본어 성서는 몇 번의 개역과정을 갖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17년의 大正訳, 1954년의 口語訳 그리고 1987년의 新共同訳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일본어 성서의 개역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성서언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어성서의 개역과정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각각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들로부터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한남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명치역 신구약의 완역은 1888년이다.

일본어의 객관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본어 연구에서 성서 일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번역서라는 점과 더불어, 단 한 번의 번역에 머물지 않고 수십 년 단위로 몇 번의 개역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서일본어가 明治期 이후의 일본어 변천을 파악하는 데에 유효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서라는 점에서는 일본어에 없던 어휘나 표현 등이 초기에 어떻게 번역되어 정착되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동일한 내용이 수회에 걸쳐 개역되었다는 점에서는 이질적이었던 다른 언어문화를 일본의 언어문화가 어떻게 수용해 왔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서는 대부분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만큼, 한국어나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서와의 비교연구나 대조연구를 통해 일본어의 객관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도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한다. 하나는 지금까지 번역된 일본어성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시적 접근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언어, 특히 언어구조가 유사한 한국어 성서와의 대조를 통해 일본어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위상어로서 성서언어의 특징 하나만을 강조해 두기로 한다. 성서번역은 word to word라는 축자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원전과는 언어구조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완벽한 축자역은 불가능하겠지만, 축자역을 지향하는 것이 성서번역의 원칙임에는 분명하다²⁾. 이런 점에서 성서번역에 사용되는 성서언어의 특징은 한 마디로 ‘절제’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어의 다양한 인칭대명사나 모달리티 형태 등이 일본어 성서에 모두 나타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성서의 개역과정을 훑다보면, 일본의 언어문화에 근거한 일본어 특징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서개역이 오역을 바로잡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성서의 내용을 개역시기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성서의 개역과정을 훑는 본 연구에서도 일본어의 객관적인 특징 몇 가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인용되는 번역성서 중에는 위에 소개된 일본어 성서외에 한국어의 旧訳(1911), 改訳(1956),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2)과 영어의 The King James Bible(KJV, 1611)과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1978) 등이고, 조사 대상은 신약성서로 제한한다.

2) 물론 역본에 따라 번역원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한국어 성서를 예로 든다면, 개역성서는 축자역이라는 형식을 우선하고 공동번역은 의미전달을 위한 내용을 우선하며 또 표준새번역은 둘의 절충적인 관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번역이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축자역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 원전에 이본이 있을 경우 그 출처를 명백히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2. 일본어 성서개역에서 ‘변하지 않는 것’

시대가 변하면서 일본어 성서가 몇 번 개역되었어도, SOV라는 통어구조에서 오는 일본어의 문법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후치사구조이며, 수식어는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구조적 특징이다.

- (1)a. 『実にこの人は義人なりき』 (大正訳)
 b. 「ほんとうに、この人は正しい人であった」 (口語訳)
 c. 「本当に、この人は正しい人だった」 (新共同訳) 루카23:47
- (2)a. それ神はその独子を賜ふほどに世を愛し給へり、すべて彼を信ずる者の亡びずして、永遠の生命を得んためなり。 (大正訳)
 b. 神はそのひとり子を賜わたるほどに、この世を愛して下さっ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ひとりも滅びないで、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 (口語訳)
 c. 神は、その独り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独り子を信じる者が一人も滅びないで、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 (新共同訳) 요ハ네3:16

(1)은 단문이고, (2)는 복문 구조를 띠고 있다. 양쪽 모두 어휘나 문체, 표기법 그리고 표현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속어가 자립어에 뒤에 붙는 후치사구조라는 점과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수식구조 등 SOV의 언어로서 일본어가 갖는 통어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변한 것으로는, (1)(2) 모두 각각의 a와 b,c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문체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들이고, 동일한 구어체인 각각의 b와 c 사이에서는 「ほんとうに」와 「本当に」 혹은 「ひとり子」와 「独り子」 등등 표기법만이 아니라, (2b)의 경어 「賜った」와 「愛して下さった」가 각각 「お与えになった」와 「愛された」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일본어의 통어구조로 보고, 이에 대해 상술하기로 한다. 가령 예문 (1)에서는 「実に」나 「ほんとうに」 등 문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문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 (2)의 「永遠の命」에서는 수식어인 「永遠の」가 피수식어인 「命」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 결국 일본어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통어규칙은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口語訳에서 수식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을 추출한 것이다.

- (3) あらゆる人を偽り者としても、神を真実なものとすべきである。 (ロマ3:4)
- (4) あなたがたは、地の塩である。 (마타5:13)
- (5) 悲しんでいる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 (마타5:4)
- (6) 心の清い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 (마타5:7)
- (7) 柔和な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 (마타5:5)
- (8) ところが、アジアからきた数人의ユダヤ人が (使24:19)
- (9) こんなことが三度もあつてから、その入れ物はすぐ天に引き上げられた。 (使10:16)
- (10) 「主よ、わたしの僕が中風でひどく苦しんで、家に寝ています」 (마타8:6)
- (11) 「しかるに今になって、ひそかに、われわれを出そうとするのか。」 (使16:37)
- (12) しかし、いと高き者は、手で造った家の内にはお住みにならない。 (使7:48)
- (13) わたしたちがエルサレムに到着すると、兄弟たちが喜んで迎えてくれた。 (使21:17)

(3)~(8)의 밑줄이 있는 것들은 고딕체인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9)~(13)에서도 밑줄 부분이 역시 고딕체인 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각각의 그룹은 피수식어가 명사인가 술어인가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것들을 수식하는 선행어는 품사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명사를 수식하는 (3)~(8)을 먼저 보면, (3)의 「あらゆる」만은 관형사로 명사수식을 전담하는 것이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즉, (4)에서는 명사가, (5)에서는 동사가, (6)에서는 형용사가, (7)에서는 형용명사가 그리고 (8)의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에 해당한다³⁾. 그러나 각각의 예문에서 이들은 모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식을 받는 명사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은 술어를 수식하는 (9)~(13)도 마찬가지이다. 즉 (9)의 「すぐ」는 술어수식을 전담하는 부사지만, 나머지는 품사가 다른 만큼 술어만을 수식하지는 않는다. 즉 (10)의 「ひどく」와 (11)의 「ひそかに」는 각각 형용사와 형용명사 「ひどい」와 「ひそか」의 활용형이고, (12)는 명사의 「で」형, (13)은 동사의 「て」형으로 품사를 달리한다. 그러나 각각의 예문에서 이들은 뒤에 오는 술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문법성에서 일치하고, 이들 역시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3)~(8)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SOV구조의 언어로서 일본어의 특징은 동일한 언어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어에도 적용되고, 문체가 다른 문어역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은 예문 (4)~(13)의 大正訳에서 추출한 것이다.

3) 본고는 문법용어를 일부 정리한다. 즉 일본 학교문법의 「連体詞」는 관형사로, 「形容動詞」는 형용명사 등으로 칭하기로 한다.

- (4)' 汝らは地の塩なり、
- (5)' 幸福かな、悲しむ者。
- (6)' 幸福かな、心の清き者。
- (7)' 幸福かな、柔和なる者。
- (8)' 然るにアジヤより来れる数人のユダヤ人ありて——
- (9)' かくの如きこと三度にして、器は直ちに天に上げられたり。
- (10)' 『主よ、わが僕、中風を病み、家に臥しみて甚く苦しめり』
- (11)' 然るに今ひそかに我らを出さんと為るか。
- (12)' されど至高者は手にて造れる所に住み給はず、
- (13)' エルサ렘に到りたれば、兄弟たち歡びて我らを迎へたり。

수식어가 명사인 (4)'와 형용명사인 (11)'를 제외하면, 문체의 변화에 기인한 형태변화를 각각의 수식어에서 볼 수 있다. (9)')(10)'은 단어가 바뀌어 있고, 그 외의 것들처럼 활용어미나 조사에 변화가 보인다. 그러나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원칙은 고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수식어의 형태변화가 수식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로마서 14장 19절을 口語訳과 大正訳에서 추출한 것이다.

- (14)a. こういうわけで、平和に役立つことや、互の徳を高めることを、追い求めようではないか。
- b. されば我ら平和のことと互に徳を立つる事とを追い求めむべし。

(14a)에서는 명사 「互」가 「の」와 결합하여 「徳」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14b)에서는 「互に」가 부사이기 때문에 「徳を立つる」라는 술어를 수식한다. 그러나 둘 모두 각각이 수식하는 것들에 선행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한편 일본어가 SOV구조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후치사구조 역시, 수식어는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상기의 통어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곧 후치사구조라는 것도 선행하는 자립어가 뒤에 붙는 부속어를 수식한다는 의미이다. 마키노(牧野成一)는 부속어가 자립어의 수식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부속어의 문법적 기능이 드러난다고 하면서⁴⁾, 조사 「が」가 부속어가 되는 예를 들고 있다. 가령, 「が」는 그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스미스さんが」이 되어 자립어 「스미스さん」의 수식을 받을 때 비로소 「が」에 주격이라는 문법성이 노정된다는 것이다. 마키노는 피수식어의 종류에 따라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조사형 등 7개의 확대문절을 설정하는데, 「스미스さんが」와 같은 경우가 조사

4) 牧野成一、『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1996、アルク、pp.63-64.

형이 된다. 마키노의 확대문절 가운데에는 접속사형과 형식명사형 그리고 모달리티형이 포함된다. 접속사형은 「雨が降ったから、」처럼 접속조사 등 접속어가 피수식어인 경우이고, 형식명사형은 「来年帰ることを」처럼 형식명사가, 모달리티형은 「夕方雨が降るようだ」처럼 모달리티소가 피수식어가 되는 경우이다⁵⁾. 이와 같이 수식구조를 마키노의 확대문절에까지 확장시키면,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규칙은 후치사구조라는 구조적 특징을 수렴함과 동시에 일본어문에서 변하지 않는 문법성이 된다.

물론 어느 경우나 이러한 수식구조에 문제가 없는 한, 피수식어 자체는 문법적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다.

- (15)a. イエスはオリブ山に行かれた。(口語訳)
 b. イエスはオリブ山へ行かれた。(新共同訳) ヨハ8:1
- (16)a. これ民より石にて打たれんことを恐れたるなり。(大正訳)
 b. しかし、人々に石で打ち殺されるのを恐れて、(口語訳) 使5:26
- (17)a. だれが、この死のからだから、わたし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口語訳)
 b. 死に定められたこの体から、だれがわたしを救ってくれるでしょうか。(新共同訳) ロマ7:24

(15)~(17)의 밑줄 부분이 각각 고딕부분을 수식하는 것을 근거로 마키노의 확대문절에서 보면, 각각 조사형과 형식명사형, 모달리티형에 해당한다. 한편 (15)~(17) 각각에서 a와 b의 수식어가 상호교체 가능한 것은 문법적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이 지켜지고 있고, 각각의 고딕 부분은 유사한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15)의 「に」와 「へ」는 방향성을, (16)의 「こと」와 「の」는 명사화소라는 점을, 그리고 (17)의 「だろう」와 「でしょう」는 단정보류라는 모달리티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교체가 가능하다. 다음 예문 (18)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두 곳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한다.

- (18)a. さまたげ つまづき
 されば今より後、われら互に審くべからず、むしろ兄弟のまへに妨碍または躓物を置かぬ
やうに心を決めよ。
- b. さまたげ つまづき
 それゆえ、今後わたしたちは、互いにさばき合うことをやめよう。むしろ、あなたがたは、
 妨げとなる物や、つまづきとなる物を兄弟の前に置かないことに、決めるがよい。
(ロマ14:13)

5) 前掲書, p.66.

(18a)의 「互に審く」는 당위의 모달리티성이 있는 「べし」를 수식하는 반면에, (18b)의 「互いにさばき合う」는 절을 명사화시키는 형식명사 「こと」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18a)와 (18b)의 「置かない」는 각각 형식명사 「やう」와 「こと」를 수식하고 있다. 어느 것이나 공통성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의미소가 문법적 의미밖에 없는 문법소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 부속어가 자립어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치사구조인 일본어에서는 자립어가 부속어를 수식한다는 수식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피수식어가 바뀌고 있는 점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앞의 「べからず」와 「ことをやめる」는 당위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뒤의 「やうに」와 「ことに」는 명령의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교체는 허용되는 것이다.

결국 일본어 성서가 지금까지 몇 번 개정되었고 앞으로 또 개정되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SOV구조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수식구조이다. 이처럼 성서일본어는 간행시기가 다른 역본을 통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일본어의 객관적인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성서와의 대조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일본어의 구조적 특징이 발견된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절이다.

- (19)a. はじめに神は天と地とを創造された。 (口語訳)
- b. 初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 (新共同訳)
- (20)a.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
- b.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공동번역)

이것은 일본어 「は」「が」와 한국어 ‘는/은’ ‘이/가/께서’와 관계된 것이다. 구노(久野 暲, 1973)의 주제와 대조, 그리고 총기와 중립서술이라는 「は」와 「が」 각각에 대한 의미구분은 한국어 ‘는’과 ‘이’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신정보와 구정보를 갖고 「は」와 「が」의 의미를 구분하려는 시바타니(柴谷 方良, 1982)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둘의 의미구조는 각각 한국어 ‘는’과 ‘이’에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즉 출현조건이 같으면 일본어 「は」는 한국어 ‘는’과, 일본어 「が」는 한국어 ‘이’와의 대응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두 나라의 성서대조에서 보면, (19)(20)처럼 동일한 출현조건 하에서 일본어 「は」의 위치에 한국어 조사 ‘는’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는, 즉 일본어 「が」의 위치에 한국어 ‘는’이 출현하는 예는 거의 없다.

예문 (19)(20)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이다. 때문에 「昔々あるところに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ありました」 처

럼 구노의 이론이라면 중립서술의 「が」가, 시바타니의 이론이라면 신정보를 나타내는 「が」가 출현해야 할 위치로, (19)와 같은 「は」의 출현은 누구의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나 ‘께서’가 출현하는 (20)의 한국어 성서가 일본어 학자 두 사람의 이론에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의 일본어문에서 「は」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들 문 앞에 언어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번역에서는 「神」의 존재를 기지의 정보로 전제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는다. 안중환(2008)에서는 이것을 두 언어권의 발상의 차이로 간주하는데⁶⁾, 이러한 예는 성서대조에서 얼마든지 추출가능하다. 다음 (21)(22)는 1910년대 역본인 일본어 大正訳과 한국어 旧訳의 로마서 1장 14~16절을 대조시킨 것이다.

(21) ^{びと}我は^{えびす}ギリシヤ人にも^{かしこ}夷人にも、^{おろか}智き者にも^{おひめ}愚なる者にも負債あり。この故に我は^あロマ^{なんぢ}に在る^{のべつた}汝らにも福音を^{しき}宣伝へんことを^{ねが}頻りに願ふなり。我は福音を恥とせず、この福音は^{びと}ユダヤ人を始め^{びと}ギリシヤ人にも、^{すくひ}凡て信ずる者に救を得さする神の力たればなり。(大正訳)

(22) 헬나 사람이나 야만이나 지혜 잇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의게 다 내가 빗진자라 그런고로 내가 힘대로 너희 로마에 잇는 사람의게도 복음을 전히기를 원히노라 내가 복음을 붓그러워히지아니히노니 복음은 모든 밋는자를 구원히시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 사람의게요 또한 헬나 사람의 게로다 (旧訳)

(21)과 (22)를 대조해 보면, 일본어 「は」는 한국어 ‘는’에 대응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게 된다. 예문 (21) 「は」의 4개 중에 1개만이 한국어문 (22)에서 ‘는’과 대응될 뿐이고 나머지 3개는 ‘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지만, 이들 성서는 동일한 원전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사들이 출현하는 환경은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된다. 때문에 두 언어의 성서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발상의 차이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발상이라는 것은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사실 1980년대 성서인 일본어 新共同訳과 한국어 공동번역에서 (21)(22)와 동일한 곳을 대조해 보면,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23) わたしは、ギリシア人にも未開の人にも、知恵のある人にもない人にも、果たすべき責

6) 안중환, 「통시적 대조자료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성서」, 일본문화학보36, P.72.

任があります。それで、ローマにいるあなたがたにも、ぜひ福音を告げ知らせたいのです。わたしは福音を恥としない。福音は、ユダヤ人をはじめ、ギリシア人にも、信じる者すべてに救いをもたらす神の力だからです。

- (24)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23)(24)를 (21)(22)와 비교하면, 조사의 변화가 일본어 쪽이 아니라 한국어 쪽에서 발견된다. 즉 일본어 성서에서는 조사에 변화가 없으나, 한국어 성서 (22)에서 ‘가’였던 조사 3개가 (24)에서는 ‘는’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성서언어를 갖고 일본어 구조를 고찰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어와의 상대적 관점에서 일본어문의 표현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구조의 기본이 한국어는 본래 주어와 술어라는 주술구조였던 데에 반해, 일본어는 주제와 진술이라는 제술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표현구조에 변화가 와서, 최근에 제술구조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은 1910년대 성서와 1980년대 성서의 대조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주제와 진술로 구성되는 제술구조라는 표현방식은 한국어와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성서언어를 통해 고찰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본어에서 변하지 않는 특징의 하나가 된다.

3. 일본어 성서개역에서 변하는 것

2의 예문 (1)(2)에서 살핀 대로 일본어 성서를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SOV 구조에서 기인하는 어순이나 수식구조와 같은 통어구조를 제외하면 표기나 어휘, 표현방식 등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일본어에만 제한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어 성서는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이러한 근대일본어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서번역이 축자역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전이나 저본의 특정 단어에 대응하는 대응어를 찾는 과정에서 단어나 어종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

는 일이다. 이종수(2009)가 한국어와 일본어 로마서 안에 있는 어휘를 비교하면서, 일본어 성서의 어종이 口語訳(1954)에서 크게 바뀌는 것을 발견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종수는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大正訳(1917)에서 고유어였던 훈독한자어 상당수가 음독한자어로 바뀌면서 한자어가 급증하는 데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 예문 (25)는 大正訳과 口語訳의 로마서 1장 4절이다.

- (25)a. 潔き靈よみがへりによれば、死人たいのうの復活ふっかつにより大能をもて神の子と定められ給へり、
 b. 聖なる靈によれば、死人からの復活により、御力をもつて神の御子と定められた。

예문 (25)를 보면, ‘復活’이라는 한자가 大正訳에서는 「よみがへり」로 훈독되고 있고, 口語訳에서는 음독되고 있다. 때문에 동일한 ‘復活’이라 할지라도, 어종에서 (25a)의 것은 고유어이고 (25b)는 한자어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가 大正訳과 口語訳 사이에 커다란 어종의 차이를 낳는다면, 일본어 로마서에서 이외에 「真理まこと」가 「真理しんり」로, 「永遠とこしへ」가 「永遠えいえん」으로, 「虚偽いつはり」가 「虚偽きょぎ」로 바뀐 것 등 30여개를 제시하고 있다⁷⁾.

그런데 성서의 개역과정에서는 원전의 언어문화와 수용언어권의 언어문화가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점차적으로 수용언어에 반영되어 가는 것들이 보인다. 본장에서는 일본어 성서의 개역과정을 추적하면서 어휘와 표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언어문화가 어떻게 성서번역에 반영되어 가고 있는가를 일부 살피기로 한다.

3.1. 어휘의 변화

일본어 번역성서의 통시적 고찰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본에서 동일했던 단어가 일본의 언어문화와 충돌하면서 여러 형태로 구분되어 간다는 점이다. 신약성서의 원전인 그리스어 Κύριε(Kyrie)와 Πάτερ(Pater)의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 (26) Κύριε(Kyrie)
 a. (主よ、わが子を憐みたまへ。) (大正訳)
 「主よ、わたしの子をあわれんでください。」 (口語訳)
 “주님, …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공동번역) 마타17:15
 b. (主よ、主よ、われらの為のひらき給へ。) (大正訳)
 「ご主人様、ご主人様、どうぞ、あけてください。」 (口語訳)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공동번역) 마타25:11

7) 이종수 『韓·日 訳聖書の語彙比較研究』, 2009, 한남대 박사학위 논문, p.115.

(27) Πάτερ(Pater)

- a. (父よ、わたしの霊をみ手にゆだねます。) (口語訳)
 『父よ、わたしの霊を御手にゆだねます。』 (新共同訳)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NIV) 루카23:46
- b. (父よ、わたし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むかって、罪を犯しました。) (口語訳)
 『お父さん、わたしは天に対しても、またお父さんに対しても罪を犯しました』 (新共同訳)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NIV)
 루카15:21

(26)의 일본어문을 보면, 한국어 공동번역에서 ‘주님’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Κύριε’가 大正訳에서는 (26a)(26b) 모두 「主よ」로 번역되었었는데, 口語訳에 와서는 「主よ」와 「ご主人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7)에서도 나타난다. 영어성서 NIV에서 ‘father’로 번역된 그리스어 ‘Πάτερ’가 1950년대 역본인 口語訳에서는 동일한 호칭 「父よ」로 번역되었으나, 1980년대 역본인 新共同訳에서는 「父よ」와 「お父さん」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본어 성서에서 「主よ」와 「ご主人様」가 구분된 것은 1950년대 역본인 口語訳이고, 「父よ」와 「お父さん」이 구분된 것은 1980년대 역본인 新共同訳으로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직전의 역본에서 동일했던 번역어가 다른 형태로 구분되는 배경은 일치한다. 즉 원전의 호칭명사를 번역할 때 처음에는 「よ」라는 호격조사를 일률적으로 적용시켰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6a)(26b)의 大正訳과 (27a)(27b)의 口語訳의 호칭명사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개역되면서 일본의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문맥분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26b)(27b)의 호칭명사는 각각 일본어의 호칭명사 「お父さん」이나 「ご主人様」의 출현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 각각을 「お父さん」과 「ご主人様」로 개정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26a)(27a) 호칭명사의 경우는 일본어 호칭명사 「お父さん」이나 「ご主人様」와는 문맥상 출현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전의 역본 그대로 호격조사 「よ」를 써서 시적인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⁸⁾.

일본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구분하는 문화라는 점이다.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て前), 우치(ウチ)와 소토(ソト)라는 것들이 일본문화의 상징어가 된 배경이 곧 구분하는 일본문화를 말해준다⁹⁾. 일본어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곳 중의 하나가 인칭대명사이다. 일본어 인칭대명사는 담화상대와 담화상황에

8) 안증환, 「성서언어의 호칭에 대한 한일 비교」, 일본문화학보34, pp.84-89.

9) 혼네와 다테마에, 우치와 소토의 경우 적절한 역어를 찾지 못해 원음을 차용하기로 한다. 이하 동일.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다. 1인칭대명사 하나만 예로 들어도, 「わたくし」「わたし」「ぼく」「おれ」「わし」등 다양하게 분화되는데, 인칭대명사의 이러한 분화 현상은 일본어성서에도 개역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大正訳에서는 문어체라는 문체적 제약과 축자역이라는 성서번역의 기본원칙으로 인해, 인칭별로 단수형과 복수형 하나씩만 출현한다. 예문 (28)~(30)의 「我」「我ら」, 「なんぢ」「汝ら」, 「彼」「彼ら」가 大正訳에 나타난 인칭별 단수형과 복수형이다.

- (28)a. 『主よ、我を去りたまへ。我は罪ある者なり』 (ルカ5:8)
 b. 『我らはキリストのために愚かなる者となり、』 (一コリ4:10) 大正訳
 (29)a. 悪鬼もまた多くの人より出でて叫びつつ言ふ、『なんぢは神の子なり』 (ルカ4:41)
 b. 「われら汝らの為に笛吹きたれど、汝ら躍らず。」 (ルカ7:32) 大正訳
 (30)a. 『此は彼より奪ふべからざるものなり』 (ルカ10:42)
 b. イエス顧みて彼らを戒め、 (ルカ9:55) 大正訳

그러나 口語訳으로 개역되면서, 인칭별로 분화되어 가는 것을 예문 (31)~(34)에서 볼 수 있다. 우선 1인칭의 경우로 단수형은 「わたし」 하나로 통일되나, 복수형은 「われわれ」「わたしたち」「わたしたども」로 분화되며, (31)(32)의 예문에 나타난다.

- (31) 「わたしは主のはしためです。お言葉どおりこの身に成りますように」 (ルカ1:38)
 (32)a. 『この人が王になるのをわれわれは望んでいない』 (ルカ19:14)
 b. 「先生、わたしたちは夜通し働きましたが、何も取れませんでした。」 (ルカ5:5)
 c. 「これがわたしたどものむすこであること、また生まれつき盲人であったことは存じています。」 (ルカ9:20)

2인칭은 단수형이 「あなた」와 「お前」로 분화되고, 복수형은 「あなたがた」와 「あなたたち」, 「お前たち」등 셋으로 분화되며, (33)(34)의 예문에서 확인된다.

- (33)a. 「恵まれた女よ、おめでとう、主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ます。」 (ルカ1:28)
 b. 「ああ、カペナウムよ、おまえは天にまであげられようとも言うのか。」 (ルカ10:15)
 (34)a. 「きょうダビデの町に、あなたがたのために救主がお生れになった。」 (ルカ2:11)
 b. 『わたしたちが笛を吹いたのに、あなたたちは踊ってくれなかった。」 (ルカ7:32)
 c. 「さばきの日には、ツロとシドンの方がおまえたちよりも、耐えやすいであろう。」 (ルカ10:14)

일본어 성서에서 분화된 인칭대명사의 용법은 일본인 일상의 언어생활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는 안증환(2009)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일본어 성서에서 인칭대명사의 분화는 3인칭에서도 나타난다. 즉 大正訳까지는 없었던 여성전용의 3인칭대명사가 단수형 「彼女」와 복수형 「彼女たち」 모두 口語訳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 (35)a. すると、彼はいっさいを捨てて立ちあがり、イエスに従ってきた。 (ルカ5:28)
- b. 彼女にはマリアという姉妹がいた。 (ルカ10:39)
- (36)a. その言葉に権威があったので、彼らはその教に驚いた。 (ルカ4:32)
- b. 彼女たちと一緒にいたほかの女たちも、このことを使徒たちに話した。 (ルカ24:10)

이처럼 1950년대 역본인 口語訳에서 여성전용의 3인칭대명사가 성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어체로의 문체 변화 때문으로 보기보다 차이를 구분하려는 일본의 언어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구조가 유사한 한국어 성서에 ‘그녀(들)’과 같은 3인칭 여성대명사가 1980년대 역본인 공동번역이나 1990년대 역본인 표준새번역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관련된다. 다음 (37)(38)은 여성 3인칭대명사가 나타난 (35b)(36b)의 ‘눅10:39’와 ‘눅24:10’을 각각 공동번역 및 표준새번역과 대조시킨 것으로, 성의 구별이 없이 ‘그(들)’로 나타나거나 ‘이 여자(들)’들처럼 대명사가 아닌 일반명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7)a.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 b.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 (38)a.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 b.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일본어 성서에서 이와 같은 인칭대명사의 분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1980년대 역본인 新共同訳에서 1인칭대명사 단수형 「わたくし」와 복수형 「わたくしたち」가 다시 추가된다.

- (39)a. 「王よ、^{わたくし}私は天からの光を見たのです。」 (使26:13)
- b. 「^{わたくし}神が私たちの先祖にお与えになった約束の実現に、望みをかけているからです。」 (使26:6)

이상, 일본어 성서 개역과정에서 변하는 것 중의 하나로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성서개역이 거듭되면서 수용언어권의 언어문화가 성서언어에도 자연스럽게 투영되면서, 원전의 특정한 단어가 일본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는 것을 일본어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다음 3.2에서는 표현의 변화로, 일본어 성서에서 표현들이 어떻게 변하면서 일본의 언어문화를 성서언어에 투영시켜가고 있는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3.2. 표현의 변화

일본어성서를 보면, 어휘와 마찬가지로 표현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수반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어 대우표현을 중심으로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대우표현은 일본어 표현의 특징적인 것 하나로 초기 번역본부터 나타나지만, 개역과정에서 변화를 쫓다보면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역본에 따른 변화내용으로, 이것은 주로 文語訳과 口語訳에서 대비된다. 다른 하나는 우치와 소토를 구분하는 일본인의 언어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도 변화가 보였다.

먼저 문말술어를 중심으로 文語訳과 口語訳의 대우표현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존경표현의 경우, 文語訳은 동사술어에서만 나타날 뿐 명사술어 등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 (40)a. かくて食したる後、イエス、シモン・ペテロに言ひ給ふ 『ヨハネの子シモンよ、汝この者どもに勝りて我を愛するか』ペテ로いふ 『主よ、然り、わが汝を愛することは、なんぢ知り給ふ』 (ヨハ21:15)
- b. ここにイエス言ひ給ふ 『なんぢら徴と不思議とを見ずば、信ぜじ』近臣いふ 『主よ、わが子の死なぬ間に下り給へ』 (ヨハ4:48~49)
- (41)a. 彼らに言ひたまふ 『なんぢら我を誰と言ふか』シモン・ペテ로答へて言ふ 『なんぢはキリスト、活ける神の子なり』 (마타16:15~16)
- b. かれ地に倒れて 『サウロ、サウロ、何ぞ我を迫害するか』といふ声をきく。彼いふ 『主よ、なんぢは誰ぞ』 (使9:4~5)

(40a)(40b)의 밑줄 친 동사술어에는 경어적 성분으로 「給ふ」가 있으나, (41a)(41b)의 명사술어 「神の子なり」나 「誰ぞ」에는 그러한 성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체와 「です」「ます」 등의 정중체 구분이 없던 문어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한편 口語訳에서는 명사술어의 표현에 변화가 보이거나, 동사술어에서처럼 특정한 경어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42)는 예문(41)에 대한 口語訳이다.

- (42)a. そこで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それでは、あなたがたはわたしをだれと言うか」シモン・ペテロ가答えて言った、「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b. 彼は地に倒れたが、その時、「サウロ、サウロ、なぜわたしを迫害するのか」と呼び掛ける声を聞いた。そこで彼は「主よ、あなたはどなたですか」と尋ねた。

(42)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술어에서는 경어표현이 단순히 정중체 「です」로 실현되거나 경어적 의미가 있는 명사로 어휘가 교체될 뿐, 「~でいらっしゃる」와 같은 경어적 성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경우에 명사술어에서도 존칭선어말어미 ‘시’가 반드시 출현하는 한국어와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한국어 1910년대 역본인 旧訳에서 인용한 것이다.

- (43)a. 골으샤디 너희는 나를 뒤라 흐느나 시몬 베드로- 디답흐야 골으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15~16)
 b. 싸에 업더져 드르매 소리 잇서 골으샤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엇지 나를 꺾박흐느나 흐시거늘 사울이 디답흐디 주여 뒤시오니잇가(행9:4~5)

결국 일본어 존경표현은 주로 동사술어에서 실현됨을 알 수 있고, 사실 口語訳에서 동사술어의 경어표현은 다양한 경어적 성분으로 분화된다. 여기에서는 文語訳의 경어적 성분 「給ふ」가 口語訳에서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만 살피기로 한다.

- (44)a. イエス答へて言ひたまふ (マタ3:15)
 (しかし、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
 b. イエス此処を去りて、彼らの会堂に入り給ひしに、 (マタ12:9)
 (イエスはそこを去って、会堂にお入りになった。)
 c. 『聖靈そのとき言ふべきことを教へ給はん』 (ルカ12:12)
 (「言うべきことは、聖靈がその時教えてくださるからである」)

(44)에서 보듯이 文語訳의 「給ふ」라는 경어적 성분이 口語訳에서는 「れる」「お~になる」「て下さる」등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일본어 성서에서 발견되는 표현의 변화이다.

한편 겸양표현의 경우, 文語訳에서 「お~する」와 같은 경어적 성분만이 아니라 겸양의 의미가 있는 특정 어휘조차도 찾기 어렵다. 이에 1980년대 역본인 新共同訳의 겸양표현을 근거로 文語訳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45)(46)의 예문은 사도행전 23장 26절과 26장 3절로, 순차대로 大正訳,

口語訳 그리고 新共同訳에서 인용한 것이다.

- (45)a. 『クラウデオ・ルツヤ謹みて総督ペリクス閣下の平安を祈る』
 b. 「クラウデオ・ルツヤ、つつしんで総督ペリクス閣下の平安を祈ります」
 c. 「クラウディウス・リシアが総督フェリクス閣下に御挨拶申し上げます」
 (46)a. 汝がユダヤ人の凡ての習慣と問題とを知るによりて殊に然りとす。されば請ふ、忍びて我に聴け。
 b. あなたは、ユダヤ人のあらゆる慣例や問題を、よく知り抜いておられるかたですから、わたしの申すことを、寛大なお心で聞い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c. 王は、ユダヤ人の慣習も論争点もみなよくご存じだからです。それで、どうか忍耐をもって、わたしの申すことを、聞い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45c)의 「御挨拶申し上げます」와 (46b)(46c)의 「聞いていただきたい」 「お願いいたします」라는 겸양표현은 모두 구어체로 표기된 성서에 나오는 것들로, 文語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성서언어만을 갖고 판단한다면, 일본어의 겸양표현은 구어체에서만 보이던 현상이 되어, 이것은 한국어와 다른 점이 된다. 예문 (47)은 사도행전 26장 3절을 한국어 旧訳에서 발췌한 것인데, 한국어는 문어체인 旧訳에서 문말에 ‘옵느이다’라는 종결어미로 겸양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 (47) 더욱 다형호은 것은 던하씩옵서 유대인의 모든 법과 밧 문테를 아십이니
 그런고로 내 말을 너그러히 드르시기를 브라운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대우표현에서 우치(ウチ)와 소토(ソト)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일본어의 존경표현은 소토지향적이라서 우치의 구성원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절대적인 전제는 아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와 나누는 담화가 있다. 형제지간이므로 우치의 사람끼리이다. 과연 文語訳에서는 경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48) 兄弟たちイエスに言ふ、『なんぢの行ふ業を弟子たちにも見せんために、此処を去りてユダヤに往け。誰にても自ら顕れんことを求めて隱に業をなす者なし。汝これらの事を為すからには、己を世にあらはせ』 (ヨハ7:3-4)

(48)의 밑줄 부분이 존경표현 「往き給へ」나 「あらはし給へ」가 아니고 「往け」「あらはせ」로 표기된 것은 확실히 우치의 구성원끼리는 경어표현을 사용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동일한 표현이 口語訳과 新共同訳에서는 변화를 거듭한다.

- (49) 「あなたがしておられるわざを弟子たちにも見せるために、ここを去りユダヤに行ってはいかがです。自分を公にあらわそうと思っている人で、隠れて仕事をするもの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これらをするからには、自分をはっきりと世にあらわしなさい。」 (口語訳)
- (50) 「ここを去ってユダヤに行き、あなたのしている業を弟子たちにも見せてやりなさい。公に知られようとしながら、ひそかに行動するような人はいない。こういうことをしているからには、自分を世にはっきり示しなさい。」 (新共同訳)

(49) 口語訳의 마지막 「あらわしなさい」는 文語訳과 같이 보통체이나, 나머지 밑줄 부분은 다르다. 특히 「しておられる」나 「いかがです」와 같은 경우는 틀림없는 경어표현이다. 그런데 이것이 (50)의 신공동역에 이르면 또 다시 확실한 보통체로 모두 교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공동역에 나타난 변화를 일본어 경어규칙으로의 올바른 회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들 역본이 위원회역인 만큼 개역작업이 진행될 때의 일본어의 언어생활이나 기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치의 인물끼리는 경어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절대적인 전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성서의 개역과정을 통해 알게 된다.

4. 결론

본고는 일본어 성서의 통시적 고찰로부터 일본어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일본어 성서는 각기 번역시기를 달리하는 위원회역이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역본들을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개역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고찰로부터 일본어의 객관적인 특징이 몇 개 드러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몇 회의 개정이나 개역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통어구조였다. 물론 이것은 일본어가 SOV구조의 언어라는 데에서 기인하지만, 일본어 통어구조의 확실한 특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키노의 주장을 인용해서, 후치사구조까지도 자립어가 후속하는 부속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

에,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통어구조는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넓게 일본어의 특징이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와의 대조적 관점으로부터 드러난 것으로, 일본어는 「が」 보다는 「は」가 중심이 되는 표현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1910년대 역본을 대조했을 때, 한국어 ‘가’의 위치에 일본어는 「は」가 많이 나타난 것에 근거하며, 그 이후의 역본에서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 조사 「は」와 「が」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뒷받침해 주었다.

다음은 일본어성서의 개역과정에서 변하는 것들이다. 축자역을 기본으로 하는 성서번역은 그 번역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개역과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나 표현 방식 등은 번역시기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변화 내용 중에서 일본의 언어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들을 추적했다. 그 하나가 어휘의 변화이다. 일본어 大正訳에서 하나의 단어로 번역되던 저본의 특정 단어가 개역과정에서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大正訳에서 「父よ」로 번역되던 영어의 ‘father’가 그 뒤의 역본에서는 「父よ」「お父さん」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일본의 언어문화와의 일치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인칭대명사도 개역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됨으로서 일본 언어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나타난 변화로, 본고에서는 대우표현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文語訳에서 「給う」 하나로 단순했던 경어표현이 口語訳에서 여러 형태로 분화되는 것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경어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알려졌던 우치와 소토의 구분도 절대적 전제는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参考文献】

(성서)

-한국어-

- 旧訳(1911), 번역위원회
- 改訳(1956), 대한성서공회
- 공동번역(1978), 대한성서공회
- 표준새번역(1993), 대한성서공회

-일본어-

- 大正訳(1917), 聖書改訳委員会
- 口語訳(1955), 日本聖書協會
- 新共同訳(1987), 日本聖書協會

-영어-

- King James Version(1987)
-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1978)

(논문 및 저서)

- 金佐代(2000).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개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옥진(1999). 『회랍어 성경연구』, 성산출판.
- 閔泳珍(1980).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한 고찰 - 대응어 선택에서 본 번역문의 성격' 『基督教思想』 9월.
- _____ (1984). 『国訳聖書研究』, 성광문화사.
- 민영진·전무용. '한국어 번역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호, 대한성서공회
- 申惠璟(1997). '성서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표현의 비교연구', <사회언어학>5-2, 한국사회언어학회
- 안증환(2004). '기도문 비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 『일본문화학보』 21,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05). '성경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1) -1950년대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27,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07). '성서언어의 호칭에 대한 한일비교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 성서 연구-' 『일본문화학보』 34, 한국일본문화학회 pp.84~88.
- _____ (2008). '통시적 대조자료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성서' 『일본문화학보』 36, 한국일본문화학회. p.72.

- _____ (2009). ‘성서언어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일본문화학보』 40, 한국일본문화학회, pp.49~62.
- 元榮喜(2001). 『한역성경의 표현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이덕주(1985).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이종수(2009) 『韓·日 翻譯聖書の 語彙 比較 研究』, 한남대 박사학위 논문, p.115.
 - 장보웅(2006). 『원문직역 헬라어 분해 대조 성경』, 로고스
 - 전무용(2000). ‘성서 번역과 국어문체-쉽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6).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호, 대한성서공회
- 정길남(1995).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박이정출판사.
 - 海老沢有道(1989). 『日本の聖書』、講談社。pp.225~230.
 -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譯史』、新教出版.
 - 関根文之助(1982). 『聖書のことばと日本語』、福永書店。 pp.37~42.
 - 土岐健治(1993). ‘邦訳聖書の源流としての漢訳聖書’, 『しにか』 9月号, 大修館書店.
 - 中沢治樹(1971). ‘聖書翻訳の諸問題’, <聖書翻訳研究>3. 日本聖書協会.
 - 牧野成一(1996).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アルク。pp.63~66.
 - 松村 明(1982).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p.217.

要 旨

日本語聖書はヘブライ語(旧約聖書)やギリシャ語(新訳聖書)を原典とする訳書である。最初聖書が日本語に完訳されたのは1880年に刊行された明治訳である。その後、日本語聖書は何回かの改訂過程を踏むようになる。そのうち、代表的なものは大正訳(1917)と口語訳(1954)、そして新共同訳(1987)である。これらはすべて個人訳でなく、翻訳委員会による公人訳だという共通点を持っている。本稿はこれら公人訳の聖書を対象にして、聖書の改訂過程から見られる日本語の変遷の中で日本語の特徴を抜き出すことに目的があった。

聖書の日本語は訳語として日本語では一つの位相語に当たる。そのような限界にも関わらず、日本語聖書の通時的な考察は訳語の変化のようなことから日本語において意外な特徴を分からせるかも知れない。この研究で明確にしたい日本語の特徴は次の二つである。一つは何回かの改訂にも関わらず、全然変っていないものは何であろうか。そしてもう一つは改訂過程で変りつつある語彙や表現の中で日本の言語文化の特徴を示すものと思われることには何があ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

研究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重なる改訂にも変わらないでいるものは修飾語が被修飾語に先行するという日本語のシンタックス構造であった。もちろんこれはSOV構造としての日本語の特徴であるが、本稿では後置詞構造までも前の自立語が後に付いている付属語を修飾すると見做したので、修飾語が被修飾語に先行するというシンタックス構造は今までの認識を上回る日本語の特徴になると思う。もう一つの改訂にも変わらない日本語の特徴は韓国語との対象から見つかった。それは日本語の表現構造の中心は主題と陳述からの題述構造であって、主語と述語による主述構造である韓国語とは違うということだ。これは助詞「は」と「が」に関係あることで、1910年代の二国の訳本対照から得られた。つまり、日本語の「は」が出現するところに韓国語では日本語の「が」に当たる'가'が位置することが非常に多かったのである。その後の訳本では少しずつ韓国語の助詞に変化が見えたが、依然として日本語の「は」のある位置で韓国語の聖書では'가'を見つけることが多い。

次は聖書の改訂と共に変わるものである。逐字訳を基本とする聖書翻訳ではその翻訳原則を変えない限り、改訂をしても大きな変化は起らないものである。しかし、日本では文語訳から口語訳への改訂もあったし、訳本同士の時間の差もあるので、語彙や表現方式はある程度変るようになっていく。本稿ではその変化の中で日本の言語文化と関連づけられるのを調査してみた。その一つが語彙においての変化である。代表的なものとして、前の訳本では同じ訳語だったのが改訂過程で幾つかの違った形態に分けられることである。たとえば、口語訳で「父よ」に訳された英語の'father'がその後の新共同訳では「父よ」と「お父さん」に分けられていたが、そのような分離の背後に日本の言語文化と一致するかどうかというのが影響する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人称代名詞も聖書の改訂と共に人称別に大きく分化していくことが確認できた。こ

れも聖書の翻訳に日本の言語文化が反映された証拠になる。最後に、表現方式における変化で、本稿では待遇表現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文語訳では敬語表現が「給ふ」一つで単純だったが、口語訳からは複数の形に分化していくのを見ることができた。その他に、敬語使用の重要な基準と知られていたウチとソトとの区分というのも敬語選択において絶対的な前提にはならないことも確認できた。

キーワード：通時的考察、日本語の特徴、統語構造、修飾と被修飾、語彙の変化、表現の変化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